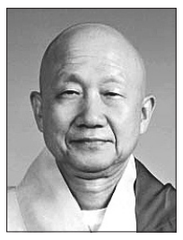
해인총림 해인사 수좌 원융 스님 원적

3월 3일 세수 82세 · 법랍 48년으로



해인총림 해인사 수좌 해우당(海牛堂) 원융(圓融) 스님<사진>이 3월 3일 오후 10시 20분 해인사 관음전 수좌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82세, 법랍 48년.

원융 스님의 분향소는 해인사 보경당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해인총림장으로 진행된다. 스님의 영결식은 3월 7일 오전 10시 보경당서, 다비식은 정오 해인사 연화대서 엄수됐다.

당대의 선지식인 성철 스님을 은사로 1972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원융 스님은 1974년부터 해인사 퇴설당 선원에서 12년간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장좌불와를 실천한 수행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93년부터는 해인사 선원장과 해인총림 유나를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는 해인총림 수좌로서 후학들을 제접해 왔다.

원융 스님은 스승 성철 스님에 대한 지극한 신심으로 평생 선방 시자를 자처하면서 스승의 법문집인 〈본지풍광〉과 〈선문정로〉의 필사를 도왔다. 또한 원융 스님은 〈선림고경총서〉 가운데 〈전심법요〉, 〈임제록〉, 〈조주록〉 번역에 힘을 보탰을 뿐만 아니라 1999년 〈간화선〉을 저술하여 선종돈법(禪宗頓法) 선양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동안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 시절에는 손수 편집한 〈서장〉을 교재로 후학들의 안목을 열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2002년 동안거 해제 후에는 서울 사당동 정안사 묘심선원에서 〈서장〉 강석을 폈고, 2005년 부산 범어사 설선(說禪)대법회에서 4000여 명의 사부대중에게 간화선의 요체를 밝히는 사자후(獅子吼)를 했다. **신성민 기자**

“탄허대선사의 삶 현대인 위한 경책”

2019 정경문학상 수상한 원행 스님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탄허대선사 시봉이야기〉
격월간 에세이스트가 선정
시상식 3월 23일 서울시청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엮어져 역사를 이룹니다. 과거 없는 현재나 현재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는 것이 바로 역사의 인연법입니다. 탄허 대선사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현재와 미래의 큰 경책으로 삼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격월간 에세이스트가 2019 정경문학상 수상자로 〈탄허대선사 시봉이야기〉의 저자 원행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원)와 〈사랑의 방명록〉의 저자 박석구 작가를 선정했다. 원행 스님은 3월 3일 본지에 저서의 발간 취지를 이 같이 밝힌 뒤 “이 책은 내 자신에게 던지는 자경”이라고 평가했다.

〈탄허대선사 시봉이야기〉는 원행 스님의 탄허선사 시봉이야기와 10 · 27불교법난 등 우리나라 근현대 100년간의 한국불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책은 탄허 대선사의 일상적 수행의 모습을 가감 없이 소박하게 진술함으로써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간다. 수행자이기 이전에 학자이며 선각자로서의 ‘탄허’를 집중 조명했다.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제1장에서 6장까지는 탄허 대선사의 예언 및 일화, 인연담 등이 소개된다. 이어 7장은 저자 원행 스님이 2016년부터 강원일보와 도민신문에 게재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 되게 하자는 취지의 청원 글들이 수록돼 있다. 마지막 8장은 탄허 스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엮어진 대담을 실었다.

원행 대종사는 약관의 나이에 월정사로 출가해 탄허 대선사 열반 때까지 20여 년을 시봉했다. 불교종단 분규와 비구 · 대처 불교 분규와 10 · 27 불교법난, 월정사 분규 사태 등을 겪으며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함께 했다.

탄허 스님과 은사 만화 스님이 열반하자 49재를 모신 다음, 가야산 해인사에서 제2의 출가를 했다. 성철 스님 문하에서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보았다. 대전 자광사를 중창하고,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부주지 소임을 겸하며 동해시 삼화사 주지 소임 때 삼화사 노사나철불을 친견했다. 이후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경찰불자들을 위하여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새롭게 장엄하는 등 대중포교에 힘썼다.

10. 27불교법난 피해자 대표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 1년 뒤 조계종 1012인을 대표해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바 있다. 저서로는 〈월정사 멍청이〉 〈10.27불교법난〉 〈만화희찬스님 시봉이야기〉 등이 있다.

2019 정경문학상 시상식은 3월 23일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MOU

용인 법륜사–용인동부경찰서 손잡아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와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는 3월 6일 법륜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용인지역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법륜사는 경찰관 초청 템플스테이와 워크숍 장소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법사학인 정진 발원”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환영법회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3월 3일 동국대 법학관에서 제28기 신입생 입학 환영법회를 개최했다. 환영법회에는 2019학년도 신입생 100명 중 서울지역 거주자 70여 명이 동참했으며, 법사학인으로서의 청규 서약과 발원을 부처님 전에 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법사교육에 대한 정진 자세를 다지는 한편, 학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윤호섭 기자**

“성공시기도 공부해 찾는다”

소재학 교수, 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개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때 노력이 부족했는지, 운이 나빴는지 등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과 ‘어떻게’ 뿐만 아니라 ‘언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동국대 학술관에서 G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을 개강한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 교수<사진>는 미래예측의 중요성을 이 같이 밝히며, ‘때’에 대한 분석으로 성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지난 3월 6일 GFCA동양미래예측학 제8기 최고위과정을, 3월 11일 GFCA풍수지리(+관사) 제5기 최고위과정을 개강했다.

소 교수는 “초보자도 1년을 공부하면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자신을 비롯해 주위의 진로선택 등 상담을 해줄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학문을 마스터할 때까지 추가비용 없이 수강 가능하다”고 최고위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소 교수에 따르면 최고위과정 수료 시에는 동국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GFCA워장 명의 수료증,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로적성상담사 또는 동양미래진로적성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불자들 기도원력, 뜻깊은 회향으로”

불자들과 가사공양비
1억원 기탁한 원경 스님

“햇수로 10년간 전국의 불자님들과 다라니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달 기도 회향을 앞두고 뜻 깊은 일을 하고 싶다는 불자님들 요청에 가사공양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껏 이어온 기도 원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전국 사찰을 돌며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기도를 해온 ‘원경 스님과 함께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108순례회’가 스님들을 위한 가사불사 기금 1억원을 3월 4일 (재)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순례회를 이끈 원경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 사진)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사공양의 공덕을 10년간 함께해 온 불자들에게 돌리며 말머리를 풀었다.

순례회는 원경 스님이 제천 덕주사 주지를 지내며 처음 시작했다. 당시에는 대다라니 기도를 하는 사찰이 많지 않았고, 원경 스님은 불자들이 기도 원력을 갖고 사찰에 찾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님은 순례회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나 덕주사 주지 소임을 마치면서 그간 인연이 닿은 불자들과 매월 전국 사찰을 돌며 대다라니 108독 기도를 올렸다. 순례에는 덕주사 신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좋아하는 전국 불자들이 함께했다.



“평균적으로 한 회에 160~180명의 불자님들이 참여합니다. 대다라니 108독을 하면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는 것 같아 좋다고 하더군요. 대다라니 108독을 할 여력이 없는 작은 사찰 주지 스님들은 신도들을 저희 순례에 다녀오라고 권유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을 대다라니 기도로 하나가 됐다. 각자의 재적사찰보다는 모두가 같은 곳에서 기도를 올리는 데 의미를 두기 시작했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10년의 세월을 함께했다. 그리고 오랜 인연을 가사불사로 회향하고자 뜻을 모았다.

“사실 순례회에서 따로 회비를 모아두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식대와 버스대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었거든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불사 기금이 잘 모일지 크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께서 많은 정성을 모아주셔서 여러 스님들을 위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원경 스님은 이제 대다라니 108순례회 회향 이후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33관음성지가 있습니다. 대다라니 기도 회향 이후 얼마나 많은 불자님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사찰들을 참배하며 신심을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윤호섭 기자**

이웃에 전한 불교계 情

응공조계종, 지역에 라면 100박스 지원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3월 4일 칠곡군 약목면사무소에 ‘아름다운 이웃돕기 물품기탁’을 명목으로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지역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의원 홍원 스님, 수덕 스님, 사무총장 지암 스님, 관음사 일각 스님, 대월사 원각 스님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易理作名法(503쪽) | 40,000원
著者 : 孫中山(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스님 판매특가 : 25,000원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30여 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저자의 역리 작명법은 다른 작명법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불용 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 한자(人名用漢字)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습니다.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10-9391-5699
입금계좌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손상용(예금주)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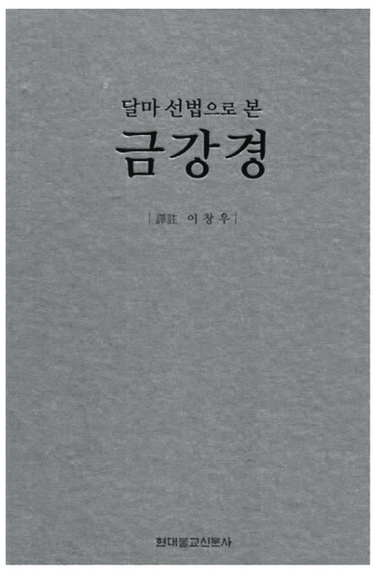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